

## - 국내 물류정책 발전에 대한 제언 - 물류공동화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주)유니온 넷 컨설팅 사업부 이사 박 찬 석

### ■ 물류공동화의 필요성

물류합리화의 방안으로 거시적 측면에서는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이 있으며, 미시적 측면에서는 기업들이 스스로 수행하여야 할 물류관리기법과 각종 물류 관련 시설의 도입과 확보 방안을 들 수 있다. 사회간접시설의 경우 개별기업 차원에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어, 기업들이 스스로 행할 수 있는 물류관리기법으로 물류공동화의 도입과 활용을 들 수 있다.

물류공동화란 물류활동에 필요한 노동력, 수송수단, 보관시설, 정보시스템, 도로, 항만 등의 물류인프라를 복수의 파트너와 함께 물류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물류효율화, 물류코스트 절감의 가장 효과적인 요인은 대량화, 즉 규모이익의 추구에 있다. 물류공동화는 단독기업으로는 한계가 있는 처리물량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대량화를 유도하기 위한 유효한 시책이며, 처리량의 기복은 참여업체에 의해 평균화로 인한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물류활동을 위한 경영자원은 “노동력, 토지, Energy” 3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이 3가지 자원 중 하나라도 조달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 물류활동이 위기에 빠질 수가 있다. 물류를 지탱하고 있는 이들 자원이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손쉽게 조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물류공동화를 활성화 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 ■ 국내 물류공동화의 문제점

지금까지 국내에서의 물류공동화의 성과는 투입한 노력에 비해 결과가 미비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물류공동화 추진에 따른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정부주도의 물류공동화의 부진

정부주도의 물류공동화사업(의약품 공동물류, 음반 공동물류 등)의 경우 기업의 물류효율화 측면보다 세원 발굴에 중점(?)을 둬서서 참여업체의 세원 노출에 대한 우려 등으로 부진.

#### 2) 물류공동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부족

하주기업과 물류사업자간 계약물류형태로만 진행됨으로서 연속적이고 효율적인 물류공동화의 진전에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물류공동화는 초기에 많은 투자가 수반되나,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자금지원, 세제혜택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이 미흡함.

#### 3) “도시물류공동화사업”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부재

차량이나 교통, 사람의 이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 도시물류를 벗어나 도시 내의 다양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도시물류공동화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부족.

#### 4) 부가가치 물류서비스의 미비

물류공동화는 정보화와 표준화가 기반이 되어야 하나, 단순비용 절감에만 머무르고 있어 부가가치 물류



서비스를 요구하는 하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

### 5) 참여기업의 CEO의 참여의지 부족

물류공동화를 이끄는 추진 주체자의 의지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참여기업CEO의 의식변화가 전제되어야 함.

### 6) 하주의 자가물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제공되는 물류서비스가 차별화되지 않아 자가물류에 집착하고 있음.

### 7) 회사기밀 유출에 대한 불신감

물류공동화를 추진시 하주기업의 판매 및 매출정보의 노출을 우려하는 CEO 및 관리자의 불신감 고조

### 8) 물류업계의 과도한 경쟁의식

영세업체의 난립으로 비용절감위주의 물류공동화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며, 물류공동화 효과를 저하시키는 저해 요소임.

### 9) 물류공동화를 위한 주도세력이 없다.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문제 발생시 중재자 및 매개자 역할을 할 주도세력이 없어 참여기업의 결속력 저하

### 10) 한국형 물류공동화 추진 Model의 부재

국내 물류공동화 추진실적이 부진한 요인 중 하나가 물류공동화를 했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냐는 구체적인 수익 모델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물류공동화에 참여하는 기업 모두가 win-win 할 수 있고 연속성을 갖는 고유의 물류공동화 Model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위에 제시한 10가지 문제점 외에 물류공동화 추진시 하주와 물류사업자 측면에서 우려되는 사항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물류공동화 추진시 우려 사항

### ▶ 하주, 납품업자 측면/물류사업자 측면

- 기업비밀 누설에 대한 우려
- 사업 재산성에 대한 우려
- 영업부문의 반대
- 비용절감에 대한 회의
- 물류공동화에 따른 작업자의 불만
- 물류서비스 수준의 저하 우려
- 물류서비스 차별화가 어려움
- 세원의 노출 우려
- 긴급 물류서비스 요구시 대응 미비
- 참여 업체간 의견 불일치
- 타 화물과 혼재에 따른 오배송 및 오염
- 물류사업자의 전문성 부족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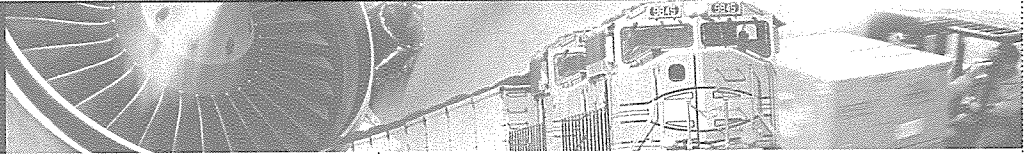
### ▶ 물류사업자 측면

- 물동량 파악 어려움
- 비참여 업체의 요금 덤핑
- 출하 시간의 집중화
- 배송순서 조절의 어려움
- 하주 증가에 따른 환경 및 지역주민의 반대
- 하주 산재시 집하시간 및 배송 효율화 문제
- 공동화 Rule를 지키지 않는 하주로 인한 타화주 불만
- 취급화물이 생소시 훈련 및 경비 문제 추가
- 성수기, 비수기에 따른 물동량 차이 발생
- 이업종인 경우 차량 설계 및 기타비용 발생
- 비 표준화로 인한 물류효율 저하

## ■ 물류공동화 활성화 방안

국내에서의 물류공동화 추진에 따른 제반 문제점과 하주와 물류사업자 측면에서의 우려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류공동화에 대한 실태 및 의식조사가 선행



되어야 한다.

‘98년 이후 국내의 물류공동화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없으며, 그 동안 물류공동화에 대한 인식 및 인식변화 등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물류공동화에 따른 사례 분석이 필요

국내 기업환경과 거래관행에 합치되는 사례 발굴을 위한, 성공 및 실패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활동이 있어야 하며, 아울러 해외 선진업체에 대한 사례 연구도 병행하여야 한다.

셋째. 물류공동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고취

물류공동화는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하는 만큼, 중소기업 CEO의 인식이 중요함에 따라 외국 선진업체 시찰 및 벤치마킹을 상설함으로써 중요성을 고취시키고, 실무자 및 관리자에게 대한 홍보 활동과 교육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가칭 “중소기업 물류효율화 촉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의 물류문제를 정면에서 파악하여 물류효율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획기적인 법률인 “중소기업유통업무효율화법”을 1992년 4월에 제정하여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의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은 중소기업자가 공동화에 의해 물류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즉, 중소기업자의 조직인 사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물류효율화의 공동사업이 동법의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되는 중소기업은 그 업종과 업태를 불문하고 물류에 종사하는 사업자면 대상이 되고, 하주의 화물을 운송하는 중소물류사업자, 소매점에 납품하는 중

소도매업자, 모기업에 납품하는 하청업자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중소기업자에 의한 공동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동법은 중소기업자가 실시하는 물류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에 대해 융자면, 세제면, 기타의 다양한 지원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서구에 비해 3자물류의 비중이 낮은 것은 물류공동화가 보편화된 이유도 있다. 3자물류의 경우 중소기업이 자가물류단계에서 3자물류로 전이하기에는 내부 시스템 및 관리능력의 부재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자물류보다 물류공동화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개별기업 입장에서 추진이 미흡한 국내 물류공동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주-물류사업자-정부(중앙정부, 지자체 등)가 3위 일체된 협업과 이에 수반되는 지원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고유의 물류공동화 Model의 개발 및 보급을 들 수 있다.

사례분석 및 벤치마킹을 통한 Case별 운영 모델(하주주도형, 물류사업자주도형, 공동형, 협동화사업형, 제3섹터형 등)의 도출을 통해 시범사업에 운영 모델을 적용 후, 물류공동화 운영 표준 Process를 정립함으로써 한국형 물류공동화 운영 Model의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시급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물류공동화 시범사업의 실시를 들 수 있다.

물류공동화에 대한 효과가 클 음반, 의약품, 제지 업종을 중심으로 “물류공동화 시범사업단”을 구성하여 물류공동화 Model을 적용하여 실시하고, 시범사업



# Plan II

결과를 홍보함으로써 물류공동화를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다.

## ■ 맺은말

물류공동화에 대한 효과는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실행한다는 것은 다르다. 물류공동화를 실시하면 하주, 물류사업자는 물론이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가?,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 대안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물음을 지속적으로 던져봐야 한다.

지금까지 국내의 물류공동화는 하주의 필요성보다는 물류사업자의 물량확보 차원에서 접근한 경우가 많았으며, 물류공동화의 효과도 단기효과인 비용절감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다양화되고 복잡화되어가는 시장 반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측면에서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다시 되돌아 봐야 한다.

물류공동화의 잇점과 다양한 효과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수많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양한 하주 계층과 사업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우리기업환경에 합치되는 물류공동화 방법론(한국적 물류공동화 운영 Model)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가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 물류가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면 적극적인 자세로 물류공동화에 참여하여야 한다. 물류공동화는 오랫동안 회자되어 왔으나 본격적인 개화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처음으로 되돌아가 다시 한다는 기분으로 물류공동화를 생각하고, 그 해결책을 도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물류**

